

얇은 智慧(지혜)요 학식은 智識(지식)이라, 깨달음은 생각이니, 느낌은 感想(감상)이다. 이는 일(事務) 사물 분수 따라 각각 나뉜다. 유형에 따라 사물에 대한 세상의 경험을 쌓아 사물의 적당한 판단을 가짐으로써 혼합물을 차례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일로서 分別(분별)하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아니하고 記憶(기억)함으로써 先行(선행)의 經驗(경험) 運動(운동) 作用(작용)에 의하여 後續(후속)의 經 運 作을 총칭하는데 이미 경험된 자극상태를 부분적인 반복에 대하여 感應(감응)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듣고 知悉(지식)하는 것이다.

슬기롭고 밝은 明慧(명혜)는 확실히 듣는 것과 똑똑함이 聰明(총명)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事理(사리)를 밝혀 能力(능력)을 발휘 실현가능함에 있다. 이밖에 피하고 狡猾(교활) 무분별한 행동으로 정신없는 狂氣(광기) 또는 간교 등 거짓재주 아름다움을 원치 않는 辨別的(변별적) 判別能力(판별능력)을 의미한다.(HEGEL,G,W,F-STOIA학파참조)

지혜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고 어울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쉬고 자고나서 정을 나누고 만족함으로 행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 논설위원



삶의 지혜를 새롭게 하자

복의 지혜가 자신에 머물게 된다.

琴瑟之樂(금실지락); 夫婦(부부)간 化福(화복)한 가족들은 유쾌하고 즐거움을 감상으로 인한 화복의 지혜, 남과 함께 일하고 대화하며 웃고 호흡이 맞아서 기쁨이 찾아드는 유쾌한 마음, 협동으로 이루어진 협조의 지혜가 자연스레 찾아온다. 자기我平溫(자나아평온; 몸소 너와 함께 어우러짐)이 찾아오는 것, STRESS 없는 삶의 지혜이다.

긴 말을 쉬어가는 의미에서 잠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금미 305호 선박 124일만에 몸값없이 풀어준 소말리아 해적들의 생각은 5인의 체포된 동료들 생각한 듯, 삶을 위한 방법? 이제 지구촌

이웃도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든다. 평화의 사도인 UN은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에 대한 평화구제 지혜를 위한 연구 중에 있겠으나 이를 더욱 더 힘써야 되겠다는 것.

본 말 글로 다시 이어 보려다. 本能(본능)은 생물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작이나 운동인데, 달걀을 부화시키면 자연적으로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온다는 것은, 자기보존본능, 종족보존본능, 단체본능, 적응본능이지만, 理智理性(이지이성)의 지혜는 본능이나 감정에 지배 되지 않고 사물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판단하는 슬기이기에 本能·理性的 상자는 열려 행복을 누릴 것이다.

모든 이를 위하여 건강 메아리를 이 사회에 전하기로 한다. 민들레는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해 준 3000종 채소 중 5위 내에 든 우수한 야채이다. 먼저 이를 禮讚(예찬)하고, 神祕名藥(신미명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보전하지는 것이다. 藥理藥效(약리약효)는 다음기회에 말하기로 하고, 이를 蒲公英(포공영: 향포) 金簪草(금잠초: 비녀)칭 하는데 이는 흰 꽃 토종이요, 노란 꽃 외래종이라 한다. 밟히고 또 밟히어도 수레가 지나가도 찢겨 나가도 고난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靛(인;인내)을, 뿌리를 캐어도 다시 움이 나오고 代創造(대 창조) 되어 剛(강;굳건)을, 또 한 大蒸(대공)씩 기다렸다 차례로 피우는 禮(예;예의)를, 또한 어둠이오거나 비가 오면 꽃잎은 달하니 辨別力(변별력)을, 나아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피는 꽃으로 勤勉性(근면성)을, 그리고 白真液(백진액;흰참액)으로써 어머니의 젖과 품안의 慈(자;사랑)를, 화 업 근은 나물로 식용되어 생명선으로 이어지고, 더불어 어디 어느 곳에도 번식 즉 風繁(풍 번) 隆盛(용성)의 勇(용;용기)을, 마지막으로 惡性病治療材料(악성병 치료재료)는 仁 등을 우리들에게 선함적으로 示唆(시사)하여 삶의 지혜를 새롭게 한다.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 갑은 그 아들인 을이 16년전 당시 만 2세의 유아로서 병이 운전한 그 소유 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인 병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무보험차량이었던 관계로 치료비 및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 받고 바로 합의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을이 고교 1학년에 재학 중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위 교통사고 당시 좌측부의 성장판을 다쳐 그 변형에 따른 후유장애가 잔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가해자인 병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측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측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

해자의 좌측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애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대리인 갑은 이제야 후유장애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기고



신 기 창

속초기상대 대장

동해안의 대설은 주로 1월과 2월에 많이 발생한다. 북고남저(북쪽에 고기압, 남

쪽에 저기압)의 기압배치에서 찬 공기와 해수온도 차에 의해 만들어진 눈구름이 북동류에 의해 수송되고, 평균해발고도 900m가 넘는 태백산맥에 부딪쳐 강제 상승되는 지형적인 원인 등으로 많은 눈이 내리며, 한번 내리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단 시간 내에 내린 많은 눈은 주로 교통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 중력에 의해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수목 가지가 꺾이는 등 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특

동해안 폭설 피해를 줄이는 방법

히 한파에 동반된 대설은 강풍과 함께 내린 눈이 얼어붙어 시설물과 도로 등에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대설로부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통 1㎡에 30cm의 눈이 내렸을 때는 그 무게는 30kg 정도 되지만 60cm가 쌓이면 그 세배인 90kg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

비닐하우스 등의 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상

당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즉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시설은 받침대를 보강하거나 비닐을 찢는 등 보조 조치를 해야 하며, 빈 하우스 비닐을 걷어내고,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자가용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자가용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설해대비

용 안전장구인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을 휴대하며, 갑속·서행 운행해야 하며,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 주차를 지양해야 한다.

또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노약자 및 어린이들은 내린 눈으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안전수칙을 알아두어 대설로부터 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